

##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 필요한 곳에 어린이집을 늘려나갑니다

- 적재적소에 540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접근성 확대 -
- 인센티브 도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인프라 유지·확충 도모 -

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8,954개소로 2022년 12월(30,923개소)보다 1,969개소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매년 2천여 개소씩 감소 추세\*다.

\* 어린이집 현황(개소수): ('20)35,352→('21)33,246→('22)30,923→('23)28,954

### <전국 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개소수)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12.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21.12.	33,246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22.12.	30,923	5,801	1,254	610	9,726	12,109	132	1,291
'23.12.	28,954	6,187	1,206	551	8,886	10,692	124	1,308

저출생에 따른 보육시설 감소 추세에 따라 부모가 정작 아이를 맡길 때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총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2024년 예산 416.5억원)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보육 수요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한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 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개소)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0)20.3→('21)22.7→('22)25.3→('23)28.3

또한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 (0세반) 1명 부족분 62.9만 원, (1세반) 1~2명 부족분 34.2만~68.4만 원,  
(2세반) 1~3명 부족분 23.2만~69.6만 원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라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영아반 인센티브 개요

국공립 확충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점순 (044-202-3540)
		담당자	사무관	위윤화 (044-202-3541)
영아반인센티브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승묵 (044-202-3560)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044-202-3562)



□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개요**

- (목표) 연 500개소 이상 확충, '27년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
- (현황) 국공립어린이집 6,182개소, 이용률 28.3%('23.12월 기준)
- (예산/보조율) 416.5억원(설치예산 416.2억원, 사업운영 0.3억원) / 50%
- (방식) 국공립어린이집 ①신축, ②매입,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내 ③국공립어린이집 설치(리모델링), 민간·가정어린이집 ④장기임차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드는 지자체의 설치비용을 지원
- (확충물량) 총 540개소(신축 35, 매입 10, 리모델링 435, 장기임차 60)
- (지원단가) ①신축·매입: 1,676천원/m<sup>2</sup>(신축 평균 505m<sup>2</sup>, 매입 평균 465m<sup>2</sup>)  
 ②리모델링: 개소당 평균 1억원(면적규모별 차등)  
 ③장기임차: 민간 2억원/개소, 가정 1.5억원/개소

□ **2024년 영아반 인센티브 사업 개요**

- (문제점) '24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채용 시, 보육료(234만 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 임금(245만 원) 지급이 어려움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보조금 형태)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인센티브)
- (지원금액) ('24년) 국비 79,612백만 원 (+79,612백만 원, 순증)
  - (0세반(정원 3명)) ('23) 無 → ('24) 현원 2명 시, 62.9만 원 추가 지원
  - (1세반(정원 5명)) ('23) 無 → ('24) 현원 3명 시, 68.4만 원 추가 지원  
 현원 4명 시, 34.2만 원 추가 지원

- (2세 반(정원 7명)) ('23) 無 → ('24) 현원 4명 시, 69.6만 원 추가 지원  
 현원 5명 시, 46.4만 원 추가 지원  
 현원 6명 시, 23.2만 원 추가 지원

<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 비교 >

(단위:만 원)

반	현원	현행		개선	
		지원	합계	지원	합계
0세반 (정원 3명)	2명	부모보육료 2명+기관보육료 2명	234	부모보육료 2명+기관보육료 2명 +인센티브 1명	297 (+62.9)
	3명	부모보육료 3명+기관보육료 3명	245	부모보육료 3명+기관보육료 3명 +인센티브 2명	314 (+68.4)
1세반 (정원 5명)	4명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	327	부모보육료 4명+기관보육료 4명 +인센티브 1명	361 (+34.2)
	5명	부모보육료 5명+기관보육료 5명	350	부모보육료 5명+기관보육료 5명 +인센티브 3명	399 (+69.6)
2세반 (정원 7명)	6명	부모보육료 6명+기관보육료 6명	376	부모보육료 6명+기관보육료 6명 +인센티브 2명	399 (+46.4)
	7명	부모보육료 7명+기관보육료 7명	400	부모보육료 7명+기관보육료 7명 +인센티브 1명	417 (+23.2)
	8명	부모보육료 8명+기관보육료 8명	424	부모보육료 8명+기관보육료 8명 +인센티브 1명	431 (+7.0)

○ (신청·지원 절차)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지급 전월 말일까지 확정하고, 시스템에 생성된 영아반 인센티브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3일까지 지급을 신청
- (시·군·구) 해당 신청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지급을 승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지급

< 영아반 인센티브 신청·지원 체계 >

